

예술 마을 4월의 새로운 책



근대성의 침략과 20세기 한국의 음악

우리가 어떻게 근대와 근대성에 의해 미취되었으며, 왜 그것이 철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주로 음악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우리의 왜곡된 근대화 과정을 함께 해온 대표적인 두 가지 양식인 트로트와 국악을 다루고 있다.

전지영 지음 / 북코리아 발행



나는 솔직한 도쿄가 좋다

"나는 스무 살에 자유를 보았다.로 회제를 모았던 서한의 유쾌하고 진지한 '도쿄문화 쾌락에세이!'. 결코 일본의 이야기도, 일본의 수도 '도쿄 만의 이야기'도 아닌 '하나의 독립된 국가 도쿄 로서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때론 깜짝하지만 때론 마치도록 불량스런 도쿄 지은 이는 도쿄의 감추어진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

서한 지음 / 도서출판 좋은책만들기 발행



과연 그것이 미술사일까?

"이제까지 배운 미술사는 모두 잊어라." 너의 논리와 체계만 있다면 곰보리치나 기드너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가르치기만 하는 기존의 미술사 책들과는 달리 알기 대신 스스로 상상하는 법을, 맹목적인 신분 대신 과감히 도전하는 법을 제시해 준다.

제임스 엘킨스 지음 / 정지인 옮김 / 아트북스 발행



영미 희곡의 세계

영미 희곡의 배경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연극과 희곡, 그리고 르네상스의 연극 및 희곡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하면서 주요 극작가와 작품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어서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미의 주요 극작가와 그들의 작품세계를 조망하였다.

정진수 지음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발행



너의 무대를 세계로 옮겨라

노키아, 모토로라, 도비어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마케팅 파트너로 활동한 저자가 세계 무대에서 10여년 이상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살려 한국에만 머물지 말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계인이 될 자세와 노하우를 갖추면 누구든 세계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안석화 지음 / 위즈덤하우스 발행



어린이를 위한 우리나라 대표 그림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그림 100편을 담았다. 우리 그림 속에는 시대 상황과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 그림을 그린 화가 등 자칫치는 이야기들이 들어 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까지의 시대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 화가의 주변 상황, 고인 등이 재미있게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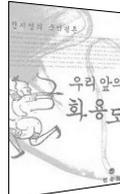
조정욱 글 / 대교출판 발행



내 미니 홈페이지를 즐겨와!

요즘 거의 모든 어린이나 어른들까지 자기만의 미니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스네, 유진, 송이, 현식이 등 주인공들 사이의 질투와 오해, 고민 우정을 미니 홈페이지를 통해 풀어 가는 이야기다. 그리고 미니 홈페이지 꾸미는 법, 사진 활용법, 사용자 주의할 점 등도 소개한다.

드림카툰 글 · 그림 / 도서출판 농민 발행



우리 앞의 화용도

전지영의 국악평론집. 예술, 그리고 국악을 본질적으로 모색하고 진정한 예술이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비롯, 정악, 민요, 판소리 등과 관련된 현재적 해석의 문제와 공연 현장에서 감지되는 허구적 의식과 사회적 맥락까지 드러내려 시도했다.

전지영 지음 / 민속원 발행



'꽃'의 시인, 김춘수

지난해 11월, 수많은 명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대어 김춘수 시인. 평소 자신의 작품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시화집 발간을 소망해 온 시인은 초작년부터 미발표 유작까지 60년 동안의 작품들 중에서 53편의 대표작들을 스스로 선별하였고, 이를 미술가 최용대의 화화와 설치 미술 등으로 표현했다.

김춘수 · 김용대 지음 / 예담 발행



셰익스피어 연가하기

이 책은 존 바튼 교수가 '셰익스피어 연가하기'라는 주제로 배우들과 함께 진행한 연극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단순히 배우들의 연기를 위한 지침서가 아닌 셰익스피어 극작품의 열린 구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풀어내고 있다.

존 바튼 지음 / 김동욱 옮김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발행



사진가

해냄 클라시커 50 시리즈의 21번째 책. 수공업에서 시작해 당당히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은 사진의 탄생부터 그 발전 과정을 함께한 사진가들의 업적 및 생애가 총망라되어 사진술의 발달과 함께 피노라 마처럼 펼쳐져 있다.

빌프리트 바츠 지음 / 최은아 옮김 / 해냄 발행



피버 피치 - 나는 왜 축구와 사랑에 빠졌는가

저자가 어린 시절부터 축구에 매혹되어 25년간 숱한 명경기를 관람하며 축구에 열광했던 순간들을 담아낸 감동의 기록. 솔한 삶의 역경을 축구와 함께 이겨내는 과정에서 진정한 팬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구를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한 책.

닉 혼비 지음 / 이나경 역음 / (주)문학사상사 발행



입말로 들려주는 우리 겨레 옛이야기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지혜편.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일을 슬기롭게 풀었던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옛이야기. 지혜는 지식과 달라서 공부 많이 한다고 꼭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다. 옛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저기도 모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향숙 글 / 장인한 그림 / (주)영림카툰 발행



아들 마음 아버지 마음

2002년 봄에서 2006년 초까지 대안학교 한빛고등학교 가족사에서 생활하는 저자의 아들 민세에게 보낸 60통의 편지를 엮은 책이다. 책을 읽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아들에게 한 편의 에세이를 보냈듯 쓴 편지들이다. 진정한 '교육'과 '성장'의 의미, 그리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책이기도 하다.

김용택 지음 / 마음산책 발행